



인터뷰 | 김언호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 ‘오랜 시간 요하는 고품격 문화와 인프라’ ... 향후 과제

‘우리 책도 이제 자신있다’ ...  
실증적 확산 큰 수확  
범출판계 협조·참여,  
주빈국행사 성공 밑거름

“이제 우리 ‘철학’을 팔 수 있어야 돼요. 선진 외국에 우리의 정신과 인문적 자산을 이렇다하고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문화국가’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한 가장 유용한 정신적·문화적 수단이 뭘까요? 바로 책이죠.” (사)대한출판문화협회 김언호 부회장(60·한길사 대표)은 그런 의미에서 “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국가야말로 문화국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는 그런 문제의식을 촉발시킨 ‘모티프’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했다.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참여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주연으로 제각기 행세했다. 허나 (사)대한출판문화협회로 대표되는 출판계야말로 상좌에 앉았어야 할 주빈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런 만큼 잔치끝의 허탈한 뒷마무리는 물론, 또다른 끝을 향한 시작 역시 출판계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부회장은 “출판계의 몫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책을 통한 문화적 사고와 예술과 인문의 집적’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좋은 책이 생명력을 지니고 원활한 신진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며 또다른 ‘시작’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회장은 “이제 자신있다”고 했다. 한국의 책도 앞으로 전지구적 차원의 문화시장에서 평가받아볼 만하다는 자신감이다. 그는 “주빈국 행사는 그런 실증적 확산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은 문제는 출판인들의 지혜를 모아 나라 안팎의 문화 수용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맺고 끝는 말 하나하나에 신념이 묻어나는 김 부회장 특유의 화법을 통해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그 후’의 의미를 짚어본다.

● 비교적 성공리에 끝났다는 평가와 함께 2005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출판과 책문화에 끼치는 영향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규정하신다면...

한국도 책의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음을 세계 각국에 알린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사회에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각인시켰다고 할까요. 굳이 말하자면 책은 국가, 사회가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문화적 수단 아니겠어요? 국제적으로도 TV나 자동차 수출로 해낼 수 없는 또다른 힘을 지니고 있죠. 아무튼 이번 주빈국 행사는 책으로 한국과 한국 사회를 말해준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봐요.

● 극소수이긴 하나, 사회 일각에선 이번 행사가 거둔 성과에 비해, 물리적 비용이나 문화적 에너지를 지나치게 투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알리고, 우리 스스로 또 다른 각색을 하게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런 잘못된 발상입니다. 책은 곧 그 국가, 사회의 문화적 사고와 예술적 성찰의 집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귀중한 결과물을 알리고, 우리 고유의 문자와 언어의 창조물을 알리는데, 그걸 돈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될 말이죠. 현지에서 펼쳐진 혜경궁 홍씨 회갑연 재연극인 '책을 위한 진연'에 감탄하는 외국인들의 표정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도 책의 전통과 '문화'가 있음을 세계에 알려

● 주빈국 행사가 끝난 후 실제로 우리 책과 출판문화를 보는 세계인의 인식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를 눈여겨본 각국의 책과 관련된 국제 행사 초청이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07년 파리도서전 주빈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미래 출판산업 컨퍼런스'에선 우리의 행사 경험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됐습니다. 특히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출간 400주년을 기념한 '세계 책과 독서의 해'의 일환으로 열린 '미래 출판산업 컨퍼런스'엔 제가 한국 대표로 발제에 나섰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출판산업의 현황과 미래가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죠.

● '포스트 주빈국' 이랄까요. 행사가 끝난 이 즈음, 앞으로 한국출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나 테마를 제시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우선 오랜 시간을 요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런 목표 과제를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장치를 마련하지는 않겠지요.

● 좀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을 말씀해주신다면...

책이란 본래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초래하는 어느 제품과는 다릅니다. 오랜 문화적 노력이 깃들어야 하고, 그 축적된 성과가 책으로 나타나는 법이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과제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쉽게 이뤄질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만들 우수한 인력 자원과 좋은 책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 문화적 환경이 구비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양질의 인프라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문화의 필요 · 충분조건이 충족되는 셈이죠. 이를테면 한국출판진흥위원회도 그 실천적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한국출판진흥위원회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과연 출판환경에 어떤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특히 공적 자금과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출판 역량을 높이고, (상업적 논리와는 별개로) 특정 분야의 책과 출판의 수준을 높여갈 때, 비로소 오랜 시간을 요하는 높은 품격의 문화가 창출되는 것이죠. 장차 한국출판진흥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 할 것입니다.

'국제적 시야와 문화적 도량으로 역량 키워가야'

● 우리 책의 대외 경쟁력도 이전 크게 향상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나 색조 등 외관에선 특히 IT강국답게 세계 어디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날로 향상, 발전되고 있어요. 이전 우리도 자신있어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국제무대에 나란히 설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철학'을 해외에 내다 팔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정신과 인문적 자산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무사히 끝낸 이 시점에서 우리 출판계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추구해야 할까요.

출판의 국제화 시대에 맞게 남의 문화를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화권과 부단히 접촉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IPA 서울총회를 비롯, 앞으로 이어질 국제도서전 등에서 우리의 출판 문화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빈국 행사를 위해 출판계가 한마음이 돼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주필**

글 박경만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